

자유무역시대 의사의 역할 - 기회와 위기

Redefining Physicians' Role in Free - Trade Era -Risks and Opportunities



손 명 세 |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 Myong-Sei SOHN, MD

Professor,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 msohn53@yuhs.ac

J Korean Med Assoc 2009; 52(2): 110 - 111

Abstract

As we move forward at a greater speed into global economic world, the current international health care market and our position in the market provide a wide variety of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for our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our government entities to consider. To optimize medical care to denizens of Korea and to prepare to compete in global medical marketplace, Korean medical practitioners and institutions will face evolving, more refined, and more specific reviews of practice quality and practioner competence. These efforts will focus on reducing medical errors, improving communication with patients and medical providers, and enhancing clinical outcomes

Keywords: International healthcare market; Health professional; Free-trade agreement

핵심용어: 자유무역협정;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시장개방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2007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유럽 연합과 협상 중에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미국과의 자유무

역협정의 체결 내용을 살펴볼 때 보건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상에 포함된 것은 의약품 약제비 특허와 관련된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의료인력의 상호교류나 영리의료법인 등은 제외되어 있다. 의사면허 상호인정은 의료계측에서는 최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영리의료법인 설립은 현행 우리 의료법 규정과의 충돌,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우리 측에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과탄, 민간의료보험의 개방 등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 내용으로 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국가적인 보호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일 뿐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현재도 부산, 인천 등 경제특구지역에서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제한된 장소이지만 자유경쟁의 물꼬를 터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유무역시대로 진화할 것이 예상된다. 향후에도 협상 내용에 보건의료인간의 인력교류가 포함될 가능성은 많이 남아있고,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 완전한 자유무역시대가 열리면 유럽연합(EU)에서와 같이 의료인력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전문인력의 국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등 선진 국가와 비교해볼 때 절대적 우위에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개방화의 거대한 물길을 헤쳐가기 위해 국가의 시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사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즉, 우선적으로 자유무역시대에 의사 개인들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학회, 국제학회 등의 참가를 통해 신의료기술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면허유지 수단으로써 보수교육에 참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료기술을 유지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의사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체 및 협회에서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선행되어야 한

다. 또한 외국의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소득수준 상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형성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하여 의사들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의료보험급여 대상인 의료행위 이외의 차별화된 의료행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국제적 기준 내지 국가간의 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상대 국가에 대한 언어구사능력 시험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일반화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학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우리 의료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원 및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의료설비투자를 지양하고, 개방형 병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비에 의존한 의료행위에 주력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의료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의료인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수 있다. 나아가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이 합리적 근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 및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통로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현재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 내용에 보건의료분야가 상당부분 제외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사전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및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자유무역주의 시대에서는 국가 간의 제한적 경쟁이나 보호 장치는 사라지게 되고 무한 경쟁시대로 나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의사들도 세계무역질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영마인드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의료기술 및 병원 경영 등에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